	<h1>보 도 참 고 자 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6.3.15(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담 당 자	이 진 영 사무관 (02-2156-9892)
	안 창 국(02-2156-9890)		박 준 영 사무관 (044-215-4232)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김 진 옥 부국장 (02-3145-6702)
	조 만 희(044-215-4230)		임 종 건 팀 장 (02-3145-7505)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변 현 아 과 장 (02-3705-5389)
	오 용 석(02-3145-6700)		서 동 수 대 리 (02-2003-9245)
	금감원 금융상황분석실장		한 경 훈 대 리 (02-2262-9556)
	이 진 석(02-3145-7500)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지 순 구(02-3705-5390)		
	금융투자협회 WM본부장		
	성 인 모(02-2003-9240)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		
	신 영 선(02-2262-6621)		

제 목 :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1. ISA 가입 현황

□ 출시 첫날인 3.14일, 총 **32만 2,990명**이 **1,095억원** 규모로 가입

-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34만원** 수준
- 업권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높음**(가입자수 기준 97.0%, 금액 기준 74.5%)
- ISA 유형별로는 **신탁형**이 **대부분**(가입자수 기준 99.8%, 금액 기준 98.4%)

출시 첫날(3.14일) ISA 가입현황

(단위: 명, 억원)

업권	신탁형		일임형		합 계	
	가입자수	금액(억)	가입자수	금액(억)	가입자수	금액
증권 (비중)	9,593 (3.0)	274 (25.5)	877 (100)	18 (100)	10,470 (3.2)	293 (26.7)
은행 (비중)	312,464 (97.0)	802 (74.5)		(미취급)	312,464 (96.7)	802 (73.2)
보험 (비중)	56 (0.0)	0.5 (0.0)		(미취급)	56 (0.0)	0.5 (0.0)
합계	322,113	1,077	877	18	322,990	1,095

2. 평 가

□ (구)재형저축, (구)소장펀드 등 기존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ISA는 출시 첫날 가입규모가 높은 수준

* 출시첫날 가입규모 :

재형저축(27만9,180계좌 / 198억원), 소장펀드(1만7,372계좌 / 16.6억원)

- 대다수 은행, 증권사가 ISA를 취급함에 따른 수요 분산과 수익률 등 비교공시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려는 요인 등으로 영업점 분위기는 차분
- 가입서류 등에 대한 고지 부족, 판매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상품 가입에 긴 시간 소요 등 지적도 일부 제기

□ 신탁형 위주로 판매된 이유는 일임형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 기존 신탁을 통한 ELS 투자자의 ISA 가입, RP 특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신탁형은 소액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시점 이후에도 편입 상품을 결정할 수 있어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 예적금 등 안전상품 선호고객을 중심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없는 신탁을 선호하여 신탁계약이 많아진 측면

- 신탁형 위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많은 영업망에 기초하여 고객 유치가 보다 용이하고, 기존 예적금 고객의 ISA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영업전략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수익률과 모델포트폴리오 비교공시 등이 본격화되면 일임형 ISA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본격적 상품 경쟁이 이루어 질 전망

- 수익률 공시가 의무화된 일임형 ISA는 수익률 비교공시가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관망하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은행 일임형 ISA 상품이 출시(4월 초)될 경우, 모델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경쟁도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인식도 변화 예상
- 일시납보다 적립식 가입이 보다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계좌수보다는 자금유입규모 위주로 확대될 전망

3. 불완전 판매 등 대응 관련

- ☐ 판매 초기에 발생한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 미흡,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 각 금융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에 대한 가입서류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 ISA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
 - 특히,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상품 구성과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
- ☐ 「ISA 점검 T/F」 등을 통해 개별 영업창구의 판매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 대응
 - 금감원은 각 사 영업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한 투자성향 분석 후 상품판매, 판매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등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당부사항 전달
 - 아울러,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상품 권유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불시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 실시

<붙임> 판매 현장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 Q&A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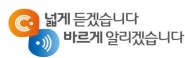
판매 현장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 Q&A

1. 가입하는데 직원의 안내가 미흡하고 가입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직원의 준비가 덜 되었는데, 조급하게 시행한 것은 아닌지?
- ☐ '15.8월 ISA 도입방안 발표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관 기관, 업계와 함께 제도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음
 - '15.8월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금융위·원, 기재부, 업계, 법률·세제 전문가와 함께 'ISA 도입준비 T/F'를 구성·운영하여 실무 준비작업을 수행해 왔음
 - 그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업계의 충분한 준비를 지원해 왔으며, 업계와 협의하여 3.14일부터 출시하게 된 것임
 - ☐ 출시 첫날이고 개별상품 판매에 비해 설명할 부분이 많아 투자자 응대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 각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 매뉴얼 점검, 철저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할 예정
 - 감독당국에서도 금융회사별 판매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2. 가입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

- ISA는 가입자별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신탁·일임 제도의 본질과 다양한 상품이 편입되는 특성상 개별상품 판매에 비해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
- 「ISA 점검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음
- 향후 신탁·일임 제도 개편시 가입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3. 가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투자자가 많은데?

- ISA 출시 안내 보도자료(3.11 배포)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 ISA는 가입자격이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자로 제한되고, 연령·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수준이 상이 →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금융회사에 방문하여야 함

< 가입자별 필요서류 >

구분	내 용	확 인 서 류	발급처
필수 서류	근로·사업 소득자	√ 사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 각 사업장 양식 없음*
		√ 사업·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소득금액·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민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민형 등 추가서류	서민형	√ 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발급 (홈택스 발급 가능)
	청년형	√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자가 청년형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병무청 (민원24발급 가능)
	자산형성형	√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	시장군수 구청장 발급

* 지급확인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 신입직원 등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자에 한정해서 사용)

- 금융회사에서 ISA 상품 설명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상품 광고시에도 필요서류 목록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

4.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 선택을 위한 투자자 정보 확인이 포괄적 위험성향 파악 수준에 그치는 등 고객 맞춤형 모델포트폴리오를 추천하기에는 미흡한데?

- ☐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 성향 파악 의무를 구체화하였음
 - 일임업자는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위험성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권유하여야 함
 - ☐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판매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음
 - 금감원의 불시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시 적극적 맞춤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것(금투업규정 4-77조)

5. ISA에서 선택가능한 상품의 폭이 제한적인 이유는?

- ☐ 조특법 등 관련 법령에서 ISA의 편입대상으로 허용하는 상품군에 속한다면 ISA에 편입상품의 범위에 제도적 제한은 없으나,
 - 해당 금융회사가 회사 내부정책과 상품 공급계약 체결유무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상품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
 - 또한, 도입 초기 금융회사별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취급하거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편입 가능상품을 일부 제한한 것 등에서 기인
 - ☐ 향후 ISA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가입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상품 선택의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도 ISA에 다양한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사 상품 편입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 3.14일 ISA에서 금융회사 간 ISA에 편입할 금융상품 거래 등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단일 허브망인 ISA-NET 서비스 개시(예탁원)